

지구역사 속의 한반도 공룡여행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한국공룡연구센터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년전인 중생대 트리아스기에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나 약 6500만년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까지 무려 1억 6천만년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한 동물이다. 한반도 공룡화석은 짧은 연구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20여곳 이상에서 화석 산출이 보고되고 왔다. 한반도에서 산출된 공룡화석은 주로 공룡발자국과 공룡알 화석이며 부분적으로 공룡뼈화석, 공룡이빨과 공룡분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이중 공룡발자국화석은 단일 지역상 세계 최대규모의 화석산지로 알려져 있다. 공룡의 주된 체화석인 공룡뼈화석은 지금까지 비록 그들의 완벽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있으나, 이제 서서히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화석지의 퇴적층 속에 함유되어 있어 체계적인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공룡화석은 한반도에서 특히 전라도 및 경상도의 남도 지역에서 다량 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룡화석들의 지구역사 속에서의 위치와 한반도 공룡화석의 특징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학술적 내용과 함께 1억 년 전의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